■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05-436.
http://doi.org/10.17948/kcs.2023..98.405

잡지 『신생활』의 문화 정치와 러시아혁명사

김현주(金賢珠)*

목 차

1. 역사적 참조항으로서의 러시아혁명사
2. 세계사의 奇形에서 逆轉의 모델로
3. 러시아혁명 담론의 지형
4. 레닌 이전의 혁명운동사
5. 러시아문학과 고리키
6. 고리키를 만나 마르크스와 크로포트킨에게로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 『신생활』(1922.3.15-1923.1.8)의 문화 정치에서 '러시아혁명사' 담론의 내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생활』은 공론장에서 러시아혁명의 이념을 볼셰비즘의 언어로 정의하고 정당화한 첫 번째 집단적 시도였다. 둘째, 『신생활』은 당대 러시아의 사회상에 대한 긍정적 표상화를 통해 반사회주의, 반러시아 담론을 반박한 한편, 볼셰비키의 혁명 이념과 혁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경의 배경 및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설했다.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분석을 전달한 성격이 강했지만, 볼셰비즘 노선을 참조하여 조선의 사회운동을 비평한 시도도 있었다. 셋째, 잡지 『신생활』과 단행본 『노국혁명사와 레닌』(1922.10.30.)에는 레닌 이전 혁명운동의 역사와 그 구성 요소를 자세히 형상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특히 혁명적 지식인의 민중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비참한 생활과 희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넷째, 신생활사에 모인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문학 혁신 운동의 모델로 러시아 근대문학과 고리키를 선택했다.

주제어: 『신생활』, 『노국혁명사와 레닌』, 러시아혁명, 볼셰비즘, 고리키.

*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역사적 참조항으로서의 러시아혁명사

『신생활』은 1922년 3월 15일에 창간호(임시호)를 발행한 후 11호-14호가 발매금지, 압수를 당하고 사장과 주필을 위시하여 총 6명이 구속, 기소된 필화사건을 겪던 중 16호(임시호)를 발행한 1923년 1월 8일에 발행금지 처분을 받아 폐간된 잡지다. 필화사건 재판이 '최초의 사회주의자 재판'으로 회자되었던 일이 보여주듯이,[1] 『신생활』은 조선의 공론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사회주의 잡지였다. 주목할 점은 이제 가까스로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이 잡지 창간호에 바로 '민중문예 연구'를 편집원칙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2]

'민중'과 '문예(예술)'의 결합을 『신생활』이 맨 처음 제안한 것은 아니다. 1920년 『조선일보』에 실린 「민본주의와 예술」에서 동치라는 필자는 '귀족주의 예술'의 반대항으로 '데모크라시 예술'을 주장하면서 예술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발전과 생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3] 1921년에 같은 신문에 게재된 「예술과 민중」은 로맹 롤랑의 민중예술론을 인용하고 '예술의 민중화'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인생 또는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예술의 역할을 강조했다.[4] 『개벽』에는 1921년부터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등의 영향 속에서 현철, 이광수 등이 예술의 보급을 통한 민중의 교화를 주장하는 논의를 펼쳤다.[5]

그런데 『신생활』의 민중문예론은 기왕의 민중예술론과는 발화 주체의 성격이 달랐다. 『개벽』에서 민중예술을 주창한 현철, 이광수 등이 민족주의 계열의 문화(주의)적 지식인이었다면, 신생활사의 기자이자 편집진으로 활약한 김명식, 신일용, 이성태, 정백, 유진희 등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였다. 『동아일보』의 논설을 집필했던 김명식을 위시하여 다수가 1920-21년에 이미 사회주의 계열의 비밀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조선노동공제회〉, 〈조선청년회

1)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재판, 신생활 사건」, 『동아일보』, 1922.12.27.
2) 「편집을 마치고」, 『신생활』 1, 1922.3.15., 71면.
3) 東痴, 「민본주의와 예술」, 『조선일보』, 1920.8.4.
4) 「예술과 민중」 (1)-(4), 『조선일보』, 1921.5.9-12.
5) 현철, 「문화사업의 급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 『개벽』 10, 1921.4; 신식, 「吾人의 생활과 예술」, 『개벽』 18, 1921.12; 京西學人(이광수), 「예술과 인생」, 『개벽』 19, 1922.1.

연합회〉 같은 단체에서 활약했고 신문과 잡지에 사회주의사상을 해설, 계몽하는 글을 발표했다.[6] 이 가운데『공제』(1920.9-1921.6.)는 사회주의 경향 잡지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조선노동공제회〉는 본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한 단체였고 그 기관지인『공제』도 문예에 관한 '새로운' 편집 원칙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런 점에서『신생활』은 한국에서 사회주의 계열 문예 운동의 첫 삽을 뜬 잡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잡지『신생활』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사상과 문예의 결합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최병구와 김종현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최병구는『신생활』을 1920년대 초반에 프로문학을 발아시킨 매체로 평가하고 주요 기사들의 분석을 통해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읽어낸 한편, 기사들에 등장하는 자기 인식, 자유, 평등, 윤리 같은 개념이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두텁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보편적 휴머니즘이『신생활』의 문학 담론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보았다.[7] 신생활사에 모인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담론 실천을 '민중문예 기획'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미화한 이는 김경연이다.[8] 그는 문학청년 정백(본명 鄭志鉉)이 휘문고보 시절의 지우인 박종화, 홍사용과 함께 문예지『백조』를 창간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고『신생활』에 참여하게 된 궤적을 화두로 삼아 신생활사에 결집한 사회주의자들이 실천한 문화 정치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잡지『신생활』의 문화 정치의 핵심은 '제국주의(자본주의)'를 적대하는 동시에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공통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상상, 즉 비-지배적, 비-재현적 공동체로서의 '사회'와 그 구성원으로서 '민중'을 제시한 데 있었다.『신생활』은 진정한 생의 요구('자아', '자유')를 추구하며 상호적 사랑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류와 연합(사회-민중)을 창안하는 감성적 실천을 문학의 정치로 실행하고자 했다는 것이다.[9]

---

6) 신생활사 기자들의 이력에 대해서는 박종린,『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 81-83면 참조.

7) 최병구,「1920년대 프로문학의 형성과정과 '미적 공통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56-63면.『신생활』에 사회주의 문예론과 문학작품이 수록된 양상에 대해서는 김종현,「『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과 문예의 특성」,『인문논총』 32,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참조.

8) 김경연,「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신생활』의 사회주의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의 기획」,『한국문학논총』 71, 한국문학회, 2015.

이러한 새로운 주체성, 즉 자아-사회(민중)에 대한 상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김경연은 우선 『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을 마르크스주의로 단일하게 파악해온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아나키즘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는 '사회'에 대한 자본주의적 감각의 근본적 전회('상호부조와 사랑')의 이론적 참조처가 바로 크로포트킨의 사상이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경연은 『신생활』에 나타난 자아(주의)나 자기 인식, 자유와 평등 개념,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흔적으로 해석하는 논의를 비판하면서 그 이론적 참조처로 마르크스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신생활』에 나타나는 "자아(개성)"이나 "자유" 개념을 '맑스 사상을 지식으로 학습한 결과'로 해석하고 감각의 변혁이라는 의제 역시 "맑스 자체에 대한 천착"에 의해 가능해졌으리라 추정했다.[10]

그런데 『신생활』의 문화 정치의 자원으로 마르크스를 소환하려는 시도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맑스 자체'에 대한 강조는 『신생활』의 문화 정치의 원천을 "소위 강령화된 코민테른형 맑스주의"[11]에서 분리해내려는 논리의 파생물이다. 그런데 『신생활』에서 '본래의 맑스주의'라는 단계를 설정하거나 그 요소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 마르크스 본인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경우가 적고 그의 사상에 대한 번역, 주석 작업도 아직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2] 『신생활』에서는 '본래의 맑스'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자원으로 작용한 양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내기가 어렵다.

본고는 『신생활』의 문화적 기획을 논의할 때 이론적 참조항과 함께 역사적 참조항을 고려하자고 제안한다. 『신생활』의 사상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의 내용 및 위상에 주목해왔으며, 볼셰비즘의 영향에

9) 김명식의 평론 「사회장은 何」(『신생활』 1, 1922.3.15.)에서 "비-권력체로서의 사회"와 "민중"의 대두에 대한 분석은 김현주, 『사회의 발견—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 소명출판, 2013, 354-357면을 참조할 수 있다.

10)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크로포트킨, 마르크스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김경연, 앞의 글, 364-367면; 374-377면; 382면.

11) 김경연, 앞의 글, 376면.

12) 『신생활』에서 마르크스의 원전 번역은 신일용의 「賃傭勞働과 資本」(『신생활』 10, 1922.11.4.)이 처음이었다. 한국에서 마르크스의 원전 번역 진행은 박종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에서 자세히 검토된 바 있다.

대한 논의는 週報 형태로 발행된 10호(1922.11.4.)가 학계에 소개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행되었다.[13] 11호(1922.11.11. 발매금지, 압수)가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호'로 편집된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볼셰비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신생활』의 사상은 '아나키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볼셰비즘'의 순서로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 레닌의 러시아 소식이 마르크스의 이론보다 더 일찍 들어왔고 더 광범위하게 참조되었다. 러시아혁명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모델이자 경험적 참고 자료로서 지식인 운동가들의 정치적,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했다.

식민지 사회주의의 러시아혁명 인식을 연구한 최은혜는『신생활』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러시아혁명 및 볼셰비즘은 후진성의 역전 그 자체를 보여준 산 표본"이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 제도와 전제 정치로부터 공산 경제와 소비에트 정치로 단번에 상황을 뒤엎을 수 있었던 러시아혁명"에서 식민지 조선이 처한 후진의 상황을 역전할 기회를 타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14] 이러한 파악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최은혜는 러시아혁명 인식이『신생활』의 문화 기획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신생활사에 모인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혁명에서 무엇을 참고했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본고의 2절에서는 주필인 김명식이 1921년도에『동아일보』에 연재한「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와 대비함으로써『신생활』에서 일어난 러시아혁명 인식의 전환을 확인했다. 3절에서는『신생활』에서 전개된 러시아혁명 담론의 주제들, 즉 혁명 후의 사회문화적 변화상과 볼셰비키의 혁명 이념 및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검토했다. 4절에서는 잡지『신생활』과 신생활사가 발행한 첫 번째 단행본『노국혁명사와 레닌』에서 레닌의 1917년 혁명이 아니라 그 이전 혁명운동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음을 밝히고 그 의미를 논의했다. 5절에서는『신생활』이 혁명 운동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13)『신생활』10호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논의로는 박현수,「신문지법과 필화의 사이:『신생활』10호의 발굴과 연구」,『민족문학사연구』6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9가 있다.
14) 최은혜,「민족과 혁명: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민족문학사연구』77,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348-353면.

문학 혁신 운동의 모델로 러시아의 근대문학과 고리키를 선택했음을 밝혔다.

2. 세계사의 奇形에서 逆轉의 모델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신문, 잡지에 맑스주의와 함께 볼셰비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도에 들어서였다.[15] "조선의 미디어에 최초로 게재된 본격적인 볼셰비즘 소개 기사"[16]는 김명식이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장 61회에 걸쳐 『동아일보』 1면에 연재한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이하 「레닌」으로 표기함)다. 레닌론이나 레닌일대기에 맞춤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 글에서 레닌 이야기는 1/2 정도에 불과하다. 김명식은 일본에서 레닌주의를 지지한 대표적 사회주의자인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레닌 傳記 및 인상기(『사회주의연구』 제3권 제3호, 1921.4)와, 그와는 반대로 반볼셰비즘의 주장을 담은 우치야마 쇼조(內山省三)의 『세계혁명사론』(江原書店, 1919.5.)과 나카메 히사요시(中目常義)의 『볼셰비즘 비판: 원제 과격파의 본령』(大鐙閣, 1921.5.) 등에서 발췌한 근대 러시아의 역사와 혁명운동사, 1905년 혁명 후 러시아 내 혁명운동의 전개, 1917년 혁명 이후 법과 제도로 구현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모습을 교차하여 배치함으로써 러시아혁명의 역사와 현재를 재현하고자 했다.

그런데 여러 이론과 해석이 뒤섞여 러시아혁명에 대한 「레닌」의 인식과 평가는 다소 혼란스럽다. 김명식은 레닌의 사상("맑스주의")과 실제 정치("독재정치") 사이에, 그리고 더 넓게는 혁명 당시의 사상·정책과 현재의 사상·정책 사이에 "變幻"과 "背馳"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야마카와 등 일본 사회주의자의 분석을 수용하여 러시아혁명의 의의를 평가하고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17] 한편 그는 볼셰비즘을 상부상조라는 자연의 원리로의 귀의로 설명하거나

15) 小野容照, 「1920-21년 조선 내 합법 출판물의 일본 문헌을 통한 맑스주의 학설 소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32-41면 참조.
16) 小野容照, 『朝鮮独立運動と東アジア: 1910-1925』, 思文閣, 2013, 167면.
17)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 『동아일보』, 1921.6.3.;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61)」, 『동아일보』, 1921.8.31.

유럽에서의 슬라브족의 부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18] 또 레닌과 레닌주의를 전제군주제와 관료정치, 그리고 자본의 탐욕이 낳은 공포를 먹고 자란 '극단적'이고 '과격한' 인물과 사상으로 평하기도 했다.[19] 김명식 스스로 작성한 서론과 본론에 표출된, 이러한 해석의 착종은, 앞서 언급한바, 러시아혁명을 상이한 시각에서 접근, 평가하는 여러 입장을 결합하고 조합한 결과였다.[20]

김명식은 동아일보사를 퇴사하고 신생활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사회주의, 특히 '신러시아'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한 바 있거니와,[21] 그는『신생활』에서 바로 러시아혁명 담론을 재개했다. 잡지의 목표[主旨]인 신생활 제창, 평민문화 건설. 자유사상 고취의 관계를 상세히 해설한「구문화와 신문화」(2호)에서 그는 평민문화=노동문화=신문화 운동을 '먼저 착수'한 사례로 러시아를 꼽았다.[22] 김명식은 지금까지의 모든 문화는 일정한 윤곽과 내용 안에서 유동, 변천했을 뿐, 인류는 아직 그 틀을 벗어난 문화를 건설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자본주의를 포함한 역사상의 모든 문화는 "소수의 문화이오 계급의 문화"라는 점에서 "구문화"라고 평했다. 그는 "전체문화이며 대중문화"인 "노동문화"야말로 "과거 역사에 일찍이 있지 못한 문화" 곧 "신문화"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신'은 앞선 것에 비하여 새롭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단절 또는 비약을 의미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김명식은 '러시아가 먼저 개시한 신문화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어 인류는 머지않아 신문화 건설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리라'고 전망했다.[23]

「노서아의 산 문학」(3호)은 러시아혁명에 대한 김명식의 인식 변화를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러시아의 문학이다.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본론의 내용은 1921년에 발표한「레닌」의

18)「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59)」,『동아일보』, 1921.8.29.
19)「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60)」,『동아일보』, 1921.8.30.
20)「레닌」의 일본어 저본들과 러시아혁명 인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현주・카게모토 츠요시(影本剛),「초창기 사회주의 지식인의 러시아혁명 인식—김명식의「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921)를 중심으로」,『동방학지』20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2, 121-136면 참조.
21) 김명식,「필화와 논전」,『삼천리』제6권 제11호 1934.11., 36면.
22)「주지」,『신생활』1, 1922.3.15., 69면; 김명식,「구문화와 신문화」,『신생활』2, 1922.3.21., 2-6면.
23) 김명식, 앞의 글, 6면.

3절 '노국 혁명운동의 유래'의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글을 옮기는 과정에서 행한 내용 생략이다. 해당 부분의 원전은 우치야마 쇼조의 『세계혁명사론』 10장 '노국 혁명운동의 발달' 중 8절 '민중예술의 영향'이다. 「레닌」에서 우치야마 글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번역했던 김명식은 「러시아의 산 문학」에서는 뒷부분을 잘라냈다. 「레닌」에는 혁명운동에 대한 민중예술의 기여에 대한 서술 바로 뒤에 아래와 같은 문단이 있었다.

> 그런데 玆에 言치 아니치 못할 것은 노서아의 정치와 사회의 실체이라. 노서아에 在하여는 모든 것이 總히 기형적이니 정치, 법률, 사회가 모두 그러하도다. 톨스토이, 고리키 등의 사상, 예술에 기형적 분자가 많은 것도 본래 저들이 기형적 정치, 법률, 사회에 반항하기 위하여 生한 것임을 思하면 하등의 不思議가 無할지라. 그러므로 칼 막쓰의 사회주의도 노서아에 入함과 共히 甚히 기형적이 되었나니 차는 노서아의 자본주의라하는 것이 서구의 자본주의와 異하야 심히 기형적인 때문이라. 노서아의 자본주의는 구제도 파괴 후 一躍하여 急來한 것이오 서구에 在함과 여(如)히 당연히 경과할만한 계단을 經치 아니하였으며 (…) 고로 막쓰의 사회주의가 이러한 기형적 사회에 환영이 되어 문득 극단 급격한 혁명주의가 되게 된 것은 족히 驚異할 바이 無하도다.[24]

논지의 전환을 표시하는 '그런데'를 앞세운 위 글에서 톨스토이나 고리키 같은 문인들의 사상과 예술은 러시아의 기형적 정치, 법률, 사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기형적 요소가 많았다고 평가된다. 이어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도 러시아에 수입되자 똑같이 심하게 기형적으로 변했다고 평한다.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갑자기 도래했고 서구와는 달리 당연히 밟아야 할 단계를 거치지 않아' 매우 기형적이었기 때문이다. 우치야마는 서구의 제도, 사상, 예술의 전개를 정상(보편)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의 역사를 타자화하는 논리를 통해 러시아의 기형성이라는 명제를 구축한 것이다. 「노서아의 산 문학」에서는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이 생략되었다. 위 인용문에서 1917년의 혁명이 러시아의 '후진성'의 露呈이었다면, 「노서아의 산 문학」에서 그것은 '후진성의 역전'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

24)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6)」, 『동아일보』, 1921.6.28.

> 西哲이 말하기를 앞선 자는 뒤지고 뒤진 자는 앞선다 하더니 이 말은 진실로 노서아를 두고 이른 말인가 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세계 각국 가운데 제일 문화가 뒤졌던 노서아가 금일에 이르러서는 제일 앞선 듯하외다. 노서아에서는 共産經濟와 委員政治를 행합니다. 이것은 세계인류가 總히 理想하는바 제도이올시다. 그러하나 역사가 오래고 문화가 앞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실행치 못하고 오직 후진한 국가 즉 노서아에서만 이 인류의 이상하는바 공산경제 위원정치를 먼저 실행함이다. (…) 그리하여 저 노서아는 과거의 문화권 내에서 뒤지었던 위치를 초탈하고 신문화권 내에서 급선봉이 되어 飄然히 앞서게 된 것이외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역사적 진화로만 관찰하면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일이외다.[25]

위 인용문의 핵심은 러시아혁명을 역사적 진보의 시간성을 顚倒시킨 사례로 제시한 데 있다. 세계에서 문화가 가장 뒤쳐져있던 러시아가 인류 전체가 희구해온, 그러나 역사가 오래고 문화가 앞선 다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이상적 제도, 즉 공산주의(경제)와 소비에트(정치)를 가장 먼저 실행했다는 것이다. 유럽의 변방이자 세계의 후진국이었던 러시아는 혁명을 통해 선진 문명국을 추월하여 세계사의 반전을 이루어냈다. 여기서 「주지」(1호)의 "평민문화", 「구문화와 신문화」(2호)의 "노동문화"의 내용이 '공산경제와 위원정치'로 규정되었다.

'앞선 자는 뒤지고 뒤진 자는 앞선다.'는 경구를 김명식이 역사적 진보의 섭리를 표현하기 위해 '轉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1920년 8월『동아일보』논설 「중국의 신 희망」에서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經에 말하기를 앞선 자 뒤지고 뒤진 자 앞선다 하였으니 이는 일종 종교에만 限한 진리가 아니라 또한 사회 진보에 응용할 만한 진리라 하리로다."[26] 논설의 주장은 중국이 일본을 제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김명식은 당시 일본 국회가 보인 '醜體'와 5·4 이후 중국 민족운동의 발전을 대비하면서 "일본은 止할 바에

25) 김명식, 「露西亞의 산 文學」,『신생활』3, 1922.4.1., 4-5면.

26) 「중국의 신 희망」,『동아일보』, 1920.8.6. 이 시기『동아일보』의 논설은 장덕수와 김명식이 번갈아가며 집필했는데, 표현과 주제를 고려하여 이 글을 김명식이 쓴 것으로 판단한다. 김명식은 다른 글에서 프랑스혁명에 의한 亞洲와 歐洲의 위치 반전(야만/문명)에 대해 설명할 때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西人이 有言하되 前한 者 後하며 後한 者 前한다 하니 실로 아주와 구주를 云함이로다." 「이월 혁명과 신사상의 발달(1)」,『동아일보』, 1921.11.7. 이 글도 필자명이 없지만 본문 중에 '앞서 「레닌」을 발표했다'는 문장이 있으므로 김명식의 글로 판단한다.(1921.12.17.)

至하고 중국은 進할 바에 來"했다고 생각했다. 이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역전을 환기했다. "노서아를 보라. 그는 일찍이 천하에 례가 없는 압제국이오 전제국이었도다. 그러나 금일에는 오히려 전일의 자유국이 보수국이 되어 그 급격한 자유주의를 방어하기에 泊沒하도다." 과거 전제국이자 압제국이었던 러시아는 자유국으로 탈바꿈한 반면, 자유국으로 자부하던 나라들은 보수국이 되어 러시아로부터 밀려오는 급진적 자유주의를 차단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27] 유럽에서도 선진과 후진이 反轉되었다는 인식이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김명식의 최초 인식은 일본 유학 시절에 형성된 것이다. 김명식은 1915년 9월에 도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여 1918년 7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사이 〈조선유학생학우회〉의 회장, 〈조선기독교청년회〉의 간부로 활약했다. 그는 '제국주의 타도와 새로운 아시아 건설'을 목표로 내건 비밀단체 〈신아동맹당〉에 참여했으며, 『학지광』에 발표한 글에는 자본주의경제조직의 타파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28] 1920년 『동아일보』 논설에서 김명식은 러시아를 역사적 반전의 실례로 소개하면서도 '러시아혁명'을 한 단어로 발음하지는 못했다. '자유국'이나 '급격한 자유주의'라는 표현은 그가 러시아혁명을 신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언어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29] 1921년 「레닌」에서는 일본의 볼셰비즘 연구를 바탕으로 러시아혁명을 설명했는데,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설명법("기형", "과격", "극단")도 사용했다. 1922년 『신생활』에 이르러 김명식은 러시아혁명을 러시아의 기형성의 노정이 아니라 인류 이상의 선구적 실현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볼셰비즘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했다.

---

27) 이어서 유럽에서 역사 반전의 또 다른 사례로 '독일혁명'을 거론했다. "독일을 보라 그는 일찍이 천하만국이 一口如出로 저주하던 군국주의이오 전제국이었도다. 그러나 금일은 오히려 전일에 저주하던 소위 문명국이 군국주의와 침략국이 되었도다."

28) 허호준, 「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 39, 탐라문화연구원, 2011, 385-406면 참조.

29) 1920년도 김명식의 사상을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또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로 논의한 글은 최선웅,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 『한국사학보』 26, 고려사학회, 2007, 300-301면.

3. 러시아혁명 담론의 지형

「러시아의 산 문학」에서 김명식은 러시아혁명이 공산경제와 위원정치를 수립함으로써 세계사의 반전을 이루어냈다고 평하고서도 그에 대해 자세히 주석하는 대신 시간을 거슬러 19세기의 사상과 문학을 소개했다. 정백은 「노농로서아의 문화시설」(6호)에서 러시아의 '무산계급독재'와 '적색제도'에 대한 직접 판단을 유보하면서 교육정책과 문화시설을 조명했다. 글의 서두에서 그는 러시아에 대한 '몰비판적 찬양·칭송'('유행병적 볼셰비즘 환자')과 '허위와 모함에 찬 중상·저주'('부르주아') 모두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30]

『신생활』에서 러시아 담론이 문학이나 문화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 것은 검열의 압박 때문이었다. 『신생활』은 애초에 출판법 적용 대상 잡지여서 정치시사 관련 기사를 게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간호를 임시호로 발행한 데 이어 편집진은 검열에 대응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 4호를 발매금지, 압수당한 후 신생활사는 편집의 고충과 경영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월간『신생활』(6-9호)은 순간『신생활』(1-5호)에 비해 호당 면수가 세 배 늘었고,[31] 이에 따라 기사의 규모, 주제, 장르가 변화했다. 이러한 편집 변화에 연동하여 러시아 관련 기사의 수와 분량이 확대되었으며 장르도 다양해졌다. 편집진은 검열 기구의 눈치를 살피고 지식인·운동가 독자와 대중 독자의 요구를 함께 고려하면서 러시아 담론의 내용과 수위를 이리 저리 조정해나갔다.

이 가운데 1917년의 러시아혁명 관련 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혁명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동향에 대한 긍정적 표상화 작업이다. 주로 19세기의 사상과 문학을 조명한 「노서아의 산 문학」에 대비할 때, 「노농로서아의 문화시설」은 혁명 후의 교육제도와 문화시설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글은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와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 공저

30) 정백, 「勞農露西亞의 文化施設」,『신생활』6, 1922.6.1., 8-18면.
31) 순간(1-3호, 5호)는 평균 61면이고 월간(6-9호)은 평균 177면이다.

『노농로서아의 연구』의 9장 '문화시설'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같은 책의 8장 '노농로국의 교육제도'의 앞부분과 러시아문학 연구자인 노보리 쇼무(昇曙夢)의 『예술의 승리-노서아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32] 노농정부의 교육인민위원회(위원장: 루나차르스키)가 과거에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것이었던 교육제도와 문화시설을 다수의 인민(민중)을 위한 것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안이 있었다.

러시아사회의 근황을 소개한 단신들도 실렸다. 천안자는 「세계란」(6호)에서 중국의 학생운동, 인도의 국민운동, 미국의 실업문제 동향과 함께 소비에트러시아노동협회가 발표한 「세계노동기념일의 선언」(1921.5.1.)을 전달했다.[33] 같은 필자가 쓴 「쏘뷔엣트 노서아의 근황」(7호)은 중국 상해 소재의 國聞通信社의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노동자와 빈농 주도의 공산당, 소년공산당, 예술생활, 종교문제, 혼인법 개정, 부인해방 등 러시아사회의 변화상을 스케치했다.[34] 이러한 기사들에서 '러시아'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 소년의 주체화(해방), 교육의 세속화, 예술의 민주화(민중화) 등 '개조시대'에 걸맞은 가치들을 앞서 구현해가는 사회로 제시되었다.

러시아사회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표상화는 反사회주의, 反러시아 담론을 반박하려는 시도였다. 박헌호에 따르면, 1920년대 전반기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나타난 반사회주의 담론 가운데 압도적인 양을 차지한 것이 혁명러시아, 노농러시아에 대한 '흑색선전'이었다. 『매일신보』는 사설, 외신, 르포, 풍문 등을 이용해 혁명 후 러시아사회를 성적 타락, 反인륜성, 기근과 생활난, 혼란과 무질서, 인종차별 등으로 재현했다.[35] 혁명 후 러시아사회의 변화상을 전한 『신생활』의 기사들은 이 같은 부정적 표상을 반박하고 수정하려는 의도였다.

---

32) 山川均・山川菊榮, 『勞農露西亞の研究』, アルス, 1921. 8-10장은 야마카와 기쿠에가 썼다. 山川菊榮・山川振作 編, 『山川均全集 3』, 勁草書房, 1967, 434-436면 참조. 昇曙夢, 『藝術の勝利—露西亞研究』, 日本評論社, 1921에서도 군데군데에서 가져왔는데, 야마카와의 글에 비해 분량이 매우 적다.

33) 千眼子, 「世界欄」, 『신생활』 6, 1922.6.1., 97-100면.

34) 千眼子, 「쏘뷔엣트 노서아의 근황」, 『신생활』 7, 1922.7.5., 109-110면.

35) 박헌호, 「192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29,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41-49면.

다른 하나는 레닌과 볼셰비키의 정치(볼셰비즘)에 대한 논의다. 「레닌」에서 이미 김명식이 문제화했듯이, 레닌의 '독재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관건적인 문제였다. 사회주의 지향의 지식청년, 운동가들이 관심을 기울였을 이 주제에 대해 맨 처음 해설을 낸 이는 신일용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맑스사상의 연구: 계급투쟁설」(6호)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글로 평가되었는데,[36]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신일용은 1절 '계급, 계급의식'에서 마르크스의 계급, 계급의식, 계급투쟁 개념을 설명한 후 2절 '노동운동의 사명과 무산계급의 독재'에서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새로운 고찰은 계급론이나 계급투쟁론이 아니라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무산계급 독재에 도달한다는 점, 그리고 그 독재가 사회주의사회로 나아가는 과도단계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한 것'을 서술하고『고타강령비판』,『불란서내란기』,「공산당선언」 등에서 마르크스가 무산계급 독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해설했다.[37] 여기에는 레닌으로부터 일본의 야마카와 히토시 등으로 이어진 논리의 영향이 확연하다. 마르크스가 혁명 단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상정했다는 레닌의 주장과 논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야마카와는『고타강령비판』,『프랑스내전』 그리고 엥겔스의 「1888년 판『공산당선언』 서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어떻게 논했는지를 검토했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처음 언급한 글인『고타강령비판』을 사카이 도시히코가 번역한 것은 1921년 10월이었다.[38] 신일용은 야마카와 등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논의와 논거를 수용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해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레닌과 볼셰비키의 정치 노선에 대한 논의는 월간 발행기에는 활발하지 못했다. 신일용이 「맑스사상의 연구: 계급투쟁설」을 시작하면서 굳이 "계급투쟁의 학설적 부분을 객관적 지위에서 소개하는 데 그치고자"한다고

36) 박종린, 앞의 책, 102-104면.
37) 신일용, 「맑스사상의 연구: 계급투쟁설」,『신생활』6, 1922.6.1., 35-46면.
38) 야마카와 히토시 등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이 레닌의 구도를 수용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한 데 대한 자세한 검토는 김현주・카게모토 츠요시, 앞의 글, 126-127면 참조.

밝힌 것은 검열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39] 8호에 실은 조우의 「노농로국의 노동법규」가 전문 삭제를 당한 일은 러시아 담론에 대해 어떤 한계선을 그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40] 「원시사회의 파멸과 귀족사회의 변천」(9호)에서 김명식은 사회구성체의 장기적 변천 과정(원시사회→귀족사회→자본제)을 서술하면서 러시아의 차르와 독일의 카이저를 들어 귀족계급의 속성을 설명하고 러시아혁명과 독일혁명의 의의를 간략하게만 언급했다.[41]

볼셰비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9월 15일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이 허용되어 정치시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할 수 있게 된 후 발행한 주보 『신생활』 10호(1922.11.4.)에서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기자는 유진희였다. "兪"(유진희)는 「볼셰비즘에 관한 일고찰」에서 볼셰비즘의 핵심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트로츠키가 1905년 혁명 후 쓴 「노동계급집정권론」과 1917년 혁명 후 쓴 글, 레닌의 주장,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등을 인용하여 사회주의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계급 독재를 요구한 볼셰비키가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42]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해설한 글로는 "솔뫼"(김명식)의 「민족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1)」이 있다. 김명식은 맑스의 「공산당선언」의 유명한 구절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를 인용하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세계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원칙을 구현한 사례로 러시아혁명을 들었다. 그는 러시아혁명의 참된 정신은 민족주의('국수주의')에 의해 초래된 국제전쟁(제1차 세계대전)을 거부하고 그 대신 계급투쟁을 고조해 세계혁명을 이루려는 코스모폴리탄 인도주의였다고 평가하면서 레닌의 입장을 지지하고 케렌스키의 실각을 민족주의의 실패로 해석했다.[43]

---

39) 신일용, 앞의 글, 35면.

40) 趙宇, 『勞農露國의 노동법규』, 『신생활』 8, 1922.8.5., 102-106면. 전문이 삭제되어 내용은 알 수 없다.

41) 김명식, 「原始社會의 破滅과 貴族社會의 變遷」, 『신생활』 9, 1922.9.5., 9-20면.

42) 兪, 「볼셰비즘에 關한 一考察」, 『신생활』 10, 1922.11.4., 11면.

43) 솔뫼, 「민족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1)」, 『신생활』 10, 1922.11.4., 3면. '코민테른'이나 '국제주의'라는 용어 대신 '코스모폴리타니즘', '코스모폴리탄 인도주의'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검열을 의식한 '언어순화'로 보인다.

레닌의 반(反)제국주의, 세계혁명론은 「레닌」에서 이미 주목된 사상이었다. 1918년 3월 볼셰비키가 교전국인 독일 등과 체결한 강화조약(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에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한 일에 대해 우치야마 쇼조는『세계혁명사론』에서 "독일의 강요에 대해 레닌 정부는 절대적 무저항주의를 수용하며 오로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했는데, 김명식은 이를 번역한 후 '러시아는 독일에 물질적으로 패배했으나 정신적으로는 독일을 포로로 만들었다'는 레닌의 말을 인용하고 주석을 달았다. 그는 러시아혁명이 러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는 또 하나의 제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던 것이다.[44] 「민족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1)」의 결론에 등장하는 '지노비에프도 레닌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다'는 언술은 야마카와의 「레닌의 생애와 사업」에서 가져온 것이지만,[45] 러시아혁명을 제국의 와해, 세계혁명의 비전과 연계하여 해설한 것은 식민지의 입장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

혁명 후 볼셰비키정부의 정책 변화를 해설한 글도 실렸다. 유진희("蕪芽")는 혁명 3년 후의 시점에서 레닌이 서민과 노동자, 당과 관료 등에게서 보이는 혁명정신의 감퇴, 부패 등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느끼면서 해외에 망명한 사회당원과의 "화친"과 "타협"을 고려한 서한 「혁명에 대한 환멸」을 번역했다.[46] "辛"(신일용)의 「무산계급의 외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레닌이 '세계혁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러시아혁명을 구출할 방법은 농민계급과 타협하거나 자본주의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길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주석을 단 글이다.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타협"이 자본주의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혁명의 성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47]

---

44) 「레닌」에서 김명식이 독일과의 강화조약에 대한 우치야마의 해석을 레닌의 평가를 인용하여 수정한 데 대해서는 김현주・카게모토 츠요시, 앞의 글, 134-135면 참조 바람. 김명식은 다른 글에서도 러시아 사회주의에 대한 우치야마 쇼조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월 혁명과 신사상의 발달」(『동아일보』, 1921.11.7.-1921.12.22. 총22회 연재)은 우치야마의『세계혁명사론』8장 '2월 혁명의 의의'를 번역한 글인데, 마지막 절인 '맑스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서술할 때 김명식은 '러시아의 불건전한 정세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가 과격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우치야마의 의견을 그대로 옮겼지만 맨 뒤에서 "노서아에 在하여는 사회주의의 발달한 역사가 복잡"하다고 부연하여 우치야마의 판단으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기도 했다(1921.12.17.).

45) 山川均, 「レーニンの生涯と事業」,『社會主義研究』3-3, 平民大學, 1921.4., 138-140면.

46) 레닌 作, 蕪芽 譯, 「革命에 對한 幻滅」,『신생활』10, 1922.11.4., 14면.

주보 『신생활』에서 전개된 볼셰비즘 담론은 1921년에 김명식이 발표한 「레닌」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레닌」은 실은 1917년 혁명 성공까지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글이었다. 야마카와의 레닌 전기는 레닌이 혁명에 성공하여 권력을 장악하기까지의 행적을 서술한 것이며, 우키야마 쇼조의 책에서 가져온 주요 내용은 근대혁명운동의 역사와 1905년 혁명에서 1917년 혁명까지의 역사였다. 나카메 히사시요의 책에서 가져온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념이 혁명 후 헌법으로 구현된 데까지였다. 이 글의 서론에서 김명식은 당시(1921년도) 볼셰비키의 사상・정책이 혁명 당시의 그것들로부터 변화되었고 심지어 반대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안점이 사상 실현에서 경제 안정으로, 사회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변했다'는 요약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 데 그쳤다.[48] 「레닌」에서 제기된 볼셰비키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는 『신생활』에서 비로소 자세히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생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등 주요 사상을 이론적으로 탐구, 주석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 예컨대 망명 정치세력이나 자본주의 국가와 타협을 시도하게 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도 해설을 제공했던 것이다.

『신생활』에 실린 볼셰비키의 정치에 대한 정보와 해설의 원천은 『사회주의연구』를 위시한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연구였다. 1920년 중반부터 일본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러시아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특히 야마카와 히토시와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가 공동 주필을 맡았던 잡지 『사회주의연구』는 볼셰비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 한편, 혁명 후 러시아 내부의 계급투쟁과 내전 상황, 경제 곤란, 그리고 외교 및 국제관계 같은 문제들을 검토했다.[49] 『신생활』의 필자들은 대체로 1921년을 전후하여 작성된 글들을 인용,

47) 辛, 「無產階級의 外交」, 『신생활』 10, 1922.11.4., 11면. 이외에 러시아혁명을 제재로 한 짧은 글로 芽(유진희)의 「低能兒의 誤算」, 公民(나경석)의 「赤貧中白貧」이 있다. 「熱風急馳」는 해외의 민족운동, 혁명운동 소식을 전한 지면인데 「浦鹽은 赤軍의 天下」, 「赤軍의 浦鹽 占領을 축복하는 트로츠키」, 「白軍과 日本軍은 生命財産의 敵」 같은 뉴스가 있다.

48)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 『동아일보』, 1921.6.3.

49) 『社會主義硏究』는 1920년 중반부터 맑스주의와 볼셰비즘을 동시에 소개, 논의했다. 小野容照, 앞의 책, 32-40면 참조.

소개했는데, 맥락을 더 상세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망명 정치세력이나 자본주의 국가와의 타협 같은 주제들을 해설한 일은 그와 같은 정책 변화를 '자본주의 국가에의 항복'으로 해석하는 담론이 조선에도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신생활』은 이러한 해석을 차단, 수정하고자 했던 것이다.[50]

김명식의 「민족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1)」에서 또 하나 검토할 점은 그가 러시아혁명의 세계주의를 전거로 삼아 조선에서 민족주의에 대응한 투쟁의 필요성을 피력한 한편,[51] 그해 8월 초에『동아일보』에 보도된 '일본 니가타현(新潟縣)의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이 계기가 되어 긴급한 문제로 부상한 '재일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조선과 일본의 노동운동의 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정윤성에 따르면, 이른바 '신석현 사건'에서 신생활사는 조선의 여러 언론・사회운동단체와 제휴하고 '민족적 차별'을 규탄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주도함으로써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제국(의 언론)에 대응하는 '민족적 공동전선'을 구축했다.[52] 이런 점에서 김명식의 글에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53]

'러시아혁명 오주년 기념호'로 발행된 11호는 발매금지, 압수되어 내용을 알 수 없는데,[54]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참조하면, 필화사건의 빌미가 된 「노서아혁명 오주년 기념」과 「오년 전 금일을 회고」는 러시아혁명을 전 세계 인민을

50) 4절에서 살피겠지만, 김명식은 단행본『노국혁명사와 레닌』을 발행할 때 「레닌」을 거의 그대로 옮겼는데, 책의 맨 마지막에 "근일에 至하야 소비에트정부의 정책이 다소 완화되어 자본주의에 항복이라는 외관을 呈하였으니 과연 금후의 레닌이 可觀이며 금후의 소비에트가 可觀이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김명식,『노국혁명사와 레닌』, 신생활사, 1922, 235면. 잡지『신생활』에는 정책 변경이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지만, 단행본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내세우지 않았다. 단행본에 대한 검열을 의식한 조정으로 보인다.

51) 박종린은 김명식의 글을 잡지『동명』의 '민족일치론'에 대한 비판과 연계하여 해석한다. 박종린, 「또 하나의 전선—신생활사그룹의 민족일치론 비판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6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1, 38면.

52) 정윤성, 「『신생활』의 역사적 의미 재론: 잡지사의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6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200-213면.

53) 박현수는 주보『신생활』10호의 편집 및 디자인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강조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현수, 앞의 글, 272-280면 참조 바람.

54) 11호에는 두 편의 글 이외에도 러시아혁명 관련 기사가 여러 편 실렸다고 한다. 「신간소개」,『동아일보』, 1922.11.13.

위한 호소로 보면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도 러시아혁명을 모델로 한 혁명이 일어나야한다는 주장을 폈다.[55] 이러한 주장은 10호에서 김명식이 러시아혁명의 사상을 전거로 삼아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사안들을 비평, 전망했던 데서 '좀 더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화사건이 순전히 글의 논조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닐 뿐더러,[56] 이 글들이 실제로 그런 내용을 주장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57]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잡지 『신생활』의 러시아혁명 담론은, 당시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동향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제공함으로써 반사회주의, 반러시아 담론을 반박, 수정한 한편, '자본주의에의 항복' 같은 담론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 무산계급 독재나 세계주의(반제국주의, 세계혁명론) 등 러시아혁명의 사상을 소개하고 전파했다. 마르크스에 대한 주석도 볼셰비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상을 적용하여 조선의 사회운동을 비평, 전망하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통일적인 운동론으로 수렴되지는 않았다. 신생활사의 이론가들은 일본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레닌주의에 가까웠던 사상가들의 분석과 해석을 참조, 수용했지만, 이때는 일본사회주의 운동에서도 어떤 통일적인 입장, 목적, 방침,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었다.[58]

4. 레닌 이전의 혁명운동사

『신생활』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담론은 1917년 혁명 이전의 혁명운동사다. 이 담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를 끈다. 하나는 3절에서 살핀 러시아혁명 관련 기사에 비해 오히려 분량이 많았고, 대화, 전기, 에세이, 소설 같은 문학적,

55) 「신생활사건의 언도」, 『조선일보』, 1923.1.17.
56) 필화사건의 배경과 의도, 결과에 대해서는 한기형, 『식민지의 문역』, 성균관대 출판부, 2019, 165-175면 참조.
57) 12-14호도 발매금지, 압수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15호(1922.12.23.)는 지면이 광고 포함 총 12면으로 줄었고 러시아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58)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의 요청으로 일본공산당이 창당한 것은 1922년 7월 15일이었고 야마카와 히토시와 사카이 도시히코는 공산당 결성을 주도한 8인 중에 속해있었는데, 초창기의 일본공산당은 조직과 강령이 매우 취약했다. 정혜선, 「1920년대 일본사회주의 운동과 평화공간—일본공산당과 사노 마나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5, 인문사회 21, 2016, 927-930면 참조.

서사적 양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단행본『노국혁명사와 레닌』의 발행 기획과 연계되었다는 점이다.『신생활』을 월간지로 전환한 후 신생활사는 출판부를 신설하고 월간『신생활』과 연계한 대중출판을 기획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명식의「레닌」을 단행본으로 편성하여 발행하는 일이었다.[59] 이 책에서 강조된 시각이 바로 레닌의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혁명운동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빈벌(신백우)이 번역한 아르치바셰프(1878-1927)의『血痕』(6호-9호, 총 4회 연재)은 "1905년 노서아 제1회 혁명 와중에서 작자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제재로 하여 쓴 혁명소설"이라는 소개문을 달고 있다.[60]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소설에서 군중 봉기는 군대에 의해 무참히 진압된다. 소설은 작은 기차역의 평범한 역장 '아니시모프'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봉기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민중들의 움직임을 전달한 동시에 그의 심리 묘사를 통해 민중들이 느꼈던 희망과 기대, 좌절감, 불안과 공포를 상세히 전한다.[61] 기안생의「지식계급의 실패」(7호)는 영국에 망명해있던 크로포트킨이 1905년 혁명의 실패 원인과 혁명운동의 지도계급 변화에 대해 러시아 청년과 대화한 내용이다. 크로포트킨은 1905년 혁명에서 실패한 것은 러시아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식계급(인텔리겐치아)'이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론의 수표를 너무 써버려서 실행에 관한 현금을 가지지 못한', 즉 자신들의 지식과 권위를 과신하여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국민을 지도하려고만 한 인텔리겐치아가 파산한 것이다.[62]

「프레쓰코쓰카야 여사 소전」(8호)은 1917년의 혁명이 수많은 혁명가가 흘린 피의 결정체라면서 혁명운동에 투신한 여성들을 소개하고 '노국혁명의 祖母'

59) 대중출판 기획 중 다른 하나는 '사회문제총서'였으나 필진인 김명식과 신일용이 구속 수감되어 무산되었다. 이 기획의 진행과 의의에 대해서는 김현주・조정윤,「『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운동의 편린」,『대동문화연구』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141-142면 참조 바람.

60) 알듸빠세푸 作, 신빈벌 譯,「혈흔」,『신생활』 6, 1922.6.1., 135면.

61)「혈흔」의 저본은 나카지마 키요시中島清의『노동자 셰비료프』(新潮社,1919)에 수록된 작품이다. 김소정,「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러시아 소설 수용 양상에 관한 비교 고찰」.『동서비교문학저널』 38,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6. 15면.

62) 飢雁生,「지식계급의 실패」,『신생활』 7, 1922.7.5., 107-108면.

프레스코스카야의 생애를 조명했다. 글의 후미에서 번역자인 일기자는 프레스코스카야의 "主義에 공명"해서가 아니라 "그 생활과 열정과 노력을 소개함을 위함"이라는 말을 덧붙였다.[63] 이는 프레스코스카야가 케렌스키정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레닌이 정권을 장악한 후 망명을 하게 된 점에도 불구하고 혁명가로서의 생애를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성태의 에세이 「상편」(9호)은 크로포트킨을 혁명가 또는 사회운동가라는 관점에서 형상화한 글이다. 『신생활』에서 이성태는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 사상 소개에 주력했는데,[64] 크로포트킨의 자서전 본문과 게오르그 브란데스의 서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글의 4/5를 차지하는 이 독서 에세이에서 그는 젊은 크로포트킨이 지리학 연구에 몰두하며 학문적 환희를 맛보다가 그 환희를 소수만 누리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고통을 느끼고 자연과학자가 되려던 마음을 돌려 사회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대목에 주목했다. 여기서 부각된 것은 아나키즘의 개념(이론)이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아니라 실천적 "열정", 노동자에 대한 사랑, "분노"와 "발분" 같은 적극적 감정, 그리고 투쟁의 의지를 가진 지식인의 형상이었다.[65]

일기자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노서아농민사경개」(9호)는 사노 마나부의 『노서아경제사연구(露西亞經濟史研究)』(大鐙閣, 1921)를 발췌 번역한 글이다.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무산자)는 러시아에서는 곧 농민이었다.'고 보고 러시아혁명에서 농민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대에서 농노제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농민의 비참한 생활과 농민 반란의 역사를 개괄했다. 농민의 심리와 요구를 통찰한 레닌이 정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토지국유화를 선언하고 농업의 사회화를 추진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 중요하게 서술된 내용은 "노서아농민의 과거"였다. 강조한 대목은 1861년 농노

63) 一記者, 「프레쓰코쓰카야女史 小傳」, 『신생활』 8, 1922.8.5., 65-71면. 이 글은 사노 마나부佐野學, 『社會制度の諸研究』, 同人社書店, 1920.(초판, 1921년 재판)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64)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5, 일본사학회, 2012.

65) 이성태, 「想片」, 『신생활』 9, 1922.9.5., 89면. 크로포트킨의 자서전 번역에 관한 논의는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43, 경희대 글로벌인문학술원, 2016 참조

해방 이후에도 봉건적 생산조직과 자본주의적 약탈의 질곡에 빠져있던 농민이 1905년 봉기부터는 스스로 혁명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었다.[66]

신생활사는 잡지『신생활』에 1905년 혁명을 앞뒤로 한 러시아의 역사와 인물, 사회계층을 조명한 다양한 기사를 수록한 한편, 단행본『노국혁명사와 레닌』을 기획, 발행했다.[67] 책의 주제와 발행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저본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김명식의 설명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8월 27일에 작성한 후기「나문 말삼」에서 그는 1년 전에『동아일보』에 연재했던「레닌」을 "增補削減"하여 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어 원본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우치야마의 사상(반볼셰비즘)이 야마카와의 사상(볼셰비즘)과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상 계통이 서로 氷炭間이라 할" 우치야마와 야마카와의 글이 "스스로 各히 유입"되면 혹시 "전후모순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內山 씨의 저서에서는 다만 역사적 사실만을 借來"함으로써 "思想上의 부조화 又는 모순이 배제"되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68] 이는 단행본『노국혁명사와 레닌』을 편성한 당시가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1921년도에「레닌」을 저술할 당시 취했던 조치에 대한 서술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21년도의「레닌」과 1922년도의『노국혁명사와 레닌』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그는 기왕에 자신이 썼던 서론과 결론, 그리고 일본어 원본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본론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러시아의 산문학」에서는 생략했던 우치야마의 문장도 이 책에는 원래대로 남겼다. 전체 20장이었던「레닌」을 14장으로 조정하고 장마다 일본어 저본의 절 제목을

66) 일기자,「露西亞農民史梗概」,『신생활』9, 1922.9.5, 57-67면. '일기자' 명의로 발표된 이 글과「프레쓰코쓰카야女史 小傳」은 사노 마나부의 책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사노 마나부(1892-1953)는 도쿄제대 대학원에서 농업사를 연구했고 사회주의단체 〈신인회〉에 참여했으며 와세다대 강사 시절 일본공산당에 입당했다. 사노 마나부의 연혁과 활동은 김정호,「佐野学의 轉向 論理와 그 社會的인 反應」,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16면; 정혜선, 앞의 글, 928-929면 참조. '일기자'는 김명식으로 추정된다.

67) 김명식,『노국혁명사와 레닌』, 신생활사, 1922.10.30. 표지 바로 다음 장에 레닌의 초상을 실었으며 총 235면이다. 이 책의 기획, 출간 과정에 대해서는 김현주・조정윤, 앞의 글, 142-144면 참조.

68) 김명식,「나문 말삼」, 앞의 책, 1면.

되살리거나 내용에 맞춰 제목을 달아주는 정도로만 글을 손봤다.

사상적 모순과 부조화를 우려하면서도 우치야마의 책에서 가져온 내용을 단행본『노국혁명사와 레닌』에 옮긴 이유는 책을 통해 전달하려한 핵심 내용이 '근대 러시아의 혁명운동사'였기 때문이었다. 김명식은 책의 원래 목적이 레닌을 소개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도 "레닌을 산출한 노서아혁명사를 일람치 아니하고 單히 레닌의 사실만을 거두절미하고 단편적으로 기술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너무 돌발적이 되어 레닌의 사업 그것을 능히 了解치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와 동시에 그 사업의 요소가 일조일석에 성취한 것이 아니라 旣히 역사적으로 장구한 시일에 胚胎成熟하였다가 마침내 실현된바 一定의 필연의 理路가 自在함을 망각하게 될 우려가 無치 아니"하다고 했다.[69] 이것이 바로 애초에 김명식이 야마카와의 레닌 전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인데,『노국혁명사와 레닌』에서는 맨 앞에 이러한 안내문을 넣어서 독자들이 '레닌의 사실과 사업' 이전에 그것을 '배태'하고 '성숙'시킨 혁명운동의 역사에 주목하도록 했다. 책 제목을 '노국혁명'에서 '노국혁명사'로 수정한 것도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후기의 말미에서 김명식은 근대 러시아 혁명운동사의 구성 요소를 '인간 감정에 대한 活문학의 호소, 농노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윤리적 분노, 반란의 선봉에 섰던 투사들의 용감한 희생, 사치 방탕한 귀족과 부호들의 횡포, 질곡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과 희생' 등으로 요약했다.[70] 앞서 살핀 잡지『신생활』의 기사들을 함께 고려하면, 신생활사의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의 혁명운동사에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새로 등장한' 지식인들의 인간애와 노동자에 대한 사랑, 혁명적 열정, 노동자와 농민의 비참한 생활과 희생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식이 혁명운동의 원동력으로 맨 먼저 꼽은 '활문학'은 바로 이를 기록하고 재현한 문학을 가리켰다.

69) 김명식, 앞의 책, 2면.
70) 김명식, 같은 책, 2-3면.

5. 러시아문학과 고리키

『신생활』의 편집원칙인 '민중문예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한 글은「노서아의 산 문학」(3호)이다. 이 글에서 김명식은 러시아 근대 문학과 사상의 초석을 놓은 고골, 게르첸, 푸시킨, 벨린스키의 민중에 대한 애정과 민중을 각성시킨 공로를 개괄하고, 투르게네프(1818-1883),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 톨스토이(1828-1910), 고리키(1868-1936)의 문학을 차례로 소개했다. 아래는 네 명의 작가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한 소결이다.

> 그런데 이상에 말씀한 "투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고리키" 등의 주장을 예술로써 볼 지경이면 各히 다른 색채가 없지 아니하되 그 철두철미하고 인류적 의식의 위에 서서 민중적 정신 가운데에서 생활한 것은 다 동일하며 자못 이 네 사람이 같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인과 사상가는 모두 이와 공통한 의식 위에 서서 공통한 정신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저들의 주장과 창작으로 말미암아 노서아 민중은 인류적 의식과 민중적 정신을 煥然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노서아의 맑스주의라 하는 것도 오로지 이 의식과 이 정신 우에 건설이 된 것이외다. 그리하고 이것이 구체적 형식을 이룸에 이르러서 사회민주당 사회혁명당이 성립이 되어 1905년의 혁명이 있었으며 또 혁명이 1917년에 폭발이 되어 금일의 노서아 즉 공산경제 위원정치의 노서아를 産하였습니다.[71]

위 인용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우치야마 쇼조가『세계혁명사론』에서 러시아의 혁명운동의 발전에 미친 민중예술의 영향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번역한「레닌」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여기에 김명식은 마지막 문장의 밑줄 친 부분, '현재의 러시아, 즉 공산주의 경제, 소비에트 정치라는 이상적 제도를 이룩한 러시아'만을 추가했다. 이 글의 주장은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혁명의 성공에는 민중들을 각성시킨 문학(인들)의 공로가 컸다는 것이다.[72]

비단「레닌」뿐만 아니라 그 글의 연재를 마친 후 바로 이어서 연재한

71) 김명식,「노서아의 산 문학」,『신생활』3, 1922.4.1., 11면.(밑줄은 인용자)
72) 김명식, 앞의 책, 4-5면.

「불란서혁명과 문학의 혁신」(1921.9.1.-10.29, 총 47회)에도 문학 혁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이 글도 우치야마의 『세계혁명사론』를 번역한 것인데, 결론에서 김명식은 '프랑스혁명의 원동력은 문학 혁신'이었다고 하고 "혁명운동이나 개조사업을 先하여 반드시 문학의 혁명이나 개조가 有"해야 한다면서 "사회와 국가의 문학을 혁신하고 신문학을 做出하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73]

『신생활』이 제시한 문학 혁명의 모델은 프랑스문학이 아니라 러시아문학이었다. 「노서아의 산 문학」에 따르면, 러시아문학은 다른 국가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문학에 대한 종래의 관념을 깨는 산 문학=生文學=活문학이다. 이는 '러시아 문학의 기형성'이라는 우치야마 쇼조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한 「레닌」의 평가)를 전도시킨 대목이다. 서구 문학의 경로에서 벗어난 것을 기형이나 후진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음의 증표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문학이 '산 문학'인 이유는 '민중의 감정과 실생활을 그대로 기록하고 인류의 이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시대의 압력과 주위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론에서 김명식은 러시아의 문학을 모범으로 삼아 조선의 문학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들이 "민중에게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74]

『신생활』에서 문학 혁신의 노력이 구체화된 것은 월간지로 전환한 6호부터다. 창간호에 '민중문예 연구'를 내걸고 3호에서 주필인 김명식이 방향성도 제시했지만, 순간 발행기(1-5호)의 편집에서는 그에 대한 적극성을 실감하기가 어렵다. 지면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치시사를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순간 발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학 기사는 뒤로 미뤄졌던 것이다. 검열기관의 압박에 밀려 월간지로 전환한 6호부터 문학 지면이 확대되어 창작 소설과 번역 소설이 다수 게재되었고 산문시, 풍자, 일기, 기행 등 장르도

73) 「불란서혁명과 문학의 혁신」, 『동아일보』, 1921.10.29. 이 글의 본론은 우치야마의 『세계혁명사론』의 3장 '불란서의 혁신문학', 5장 '불국혁명의 경과', 6장 '세계혁명사상에 있어서 나폴레옹의 위치', 7장 '불란서 혁명 이후 사회상태의 일변'을 번역한 것이다.

74) 김명식, 앞의 책, 5-6면. 이 글의 주장과 주요 개념을 활용한 현장평론으로 「서화협회 제이회 전람회를 보고」가 있다. 일기자, 「서화협회 제2회 전람회를 보고」, 『신생활』 5. 1922.4.22, 39-42면. 필자는 김명식으로 추정된다.

다양해졌다. 염상섭의『묘지』(『만세전』)가 연재된 것도 이때다(7-9호).[75]『신생활』에는 문학 관련 번역물은 총 12편이었는데, 이 중 11편이 6호 이후에 게재되었다. 아래는 러시아 문학 관련 번역물 7편의 목록이다.

〈표 1〉 러시아 문학 관련 번역물 목록(문학론・비평 포함, 저자명은 현대어 표기로 바꿈)

호	저자	제목	번역자(본명)	비고
3	우치야마 쇼조	露西亞의 산 文學	김명식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 3절 일부의 재수록
6	야마카와 기쿠에	勞農露西亞의 文化施設	정백(정지현)	노보리 쇼무의 글 일부 포함
6-9	아르치바셰프	血痕	신빈벌(신백우)	완역
7	고리키	意中之人	秦瞬星(진학문)	
10	고리키	信仰과 主義	蕪芽(유진희)	
10	크로포트킨	民衆文豪 고리끼의 面影(1)	赤吠(신일용)	미완
15	에로센코	公主와 漁夫	時白(미상)	미완

1920년대 초 로맹 롤랑의 민중예술론의 수용 경로를 추적한 박양신은 당시에 "민중예술의 주장은 사회주의계열로부터도 등장했다"고 지적하고 김명식의 「노서아의 산 문학」과 정백의 「노농로서아의 문화시설」을 검토하여 이 논의가 "사회주의체제를 발족시킨 러시아 사례를 원용하는 형태"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76] 이는『신생활』의 민중예술론의 러시아 맥락을 짚어준 의미가 있는데, 위 목록을 보면『신생활』에서 민중예술에 대한 관심이 김명식과 정백의 글로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문학 관련 작품 7편 중 문학론 및 비평이 3편이고 소설이 4편이다. 제일 먼저, 그리고 길게 연재된 소설은 앞서 살핀 아르치바셰프의『혈흔』이었지만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작가는 고리키였다. 김명식이 「노서아의 산 문학」에서 거론한 문호 4명 가운데『신생활』이 관심은 가진 작가는 맨 마지막의

75) 신생활사의 기자들은『신생활』에 창작 10편(소설 1편, 시 6편, 수필・일기 2편, 현장비평 1편), 번역/번안 8편(소설 5편, 문학론・비평 3편)을 발표했는데, 이 글들도 대체로 6호 이후에 실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로 참조했던 사카이 도시히코나 오스기 사카에처럼 문학적 형식을 활용하여 검열 권력을 우회하면서 사회주의사상에 입각한 비평과 계몽을 수행했다.

76) 박양신, 「다이쇼시기 일본・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한림일본학』22,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3, 48면.

고리키였다. 진학문의 「의중지인」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고리키의 소설이었다(1922.7.5.). 이어 유진희가 소설 「신앙과 주의」를 번역했다(1922.11.4.). 바로 뒤에 게재된 신일용의 「민중문호 고리끼의 면영(1)」은, 비록 미완이지만, 고리키의 자서전과 크로포트킨의 고리키 비평을 발췌 번역한 글이었다.

위 글들을 앞뒤로 한 고리키의 수용사를 일별하면, 조선에서 '고리키'는 1910년대 후반 『청춘』에 실린 이광수의 소설 「金鏡」과 『학지광』에 실린 極熊 최승만의 「노서아 국민성」에 이름 정도가 등장하며, 『신민공론』 창간호(1921.5.11.)에 孤月이라는 필자가 「露文豪 고리키 略傳」를 통해 생애와 문학 세계를 소개했다. 아울러 고리키 소설의 번역으로는 현진건의 「가을의 하로밤」(『개벽』 25, 1922.7.10.)이 있고, 이어서 진학문의 「첼캇슈」(『동아일보』, 1922.8.2.-9.16. 총 47회 연재)가 있다.[77]

주보 『신생활』 10호가 2019년에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유진희의 소설 번역과 신일용의 평론은 고리키 수용사에서 아직 논의된 적이 없는데, 볼셰비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주보』 10호에서 두 명의 기자가 고리키의 소설을 번역하고 고리키의 자서전과 그에 대한 평론을 참조하여 소개문을 작성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민중문호'라는 호칭을 고려하면, 『신생활』의 '민중문예 연구'의 귀착점은 고리키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진건이나 진학문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보다 먼저, 조선에서 러시아문학의 추천도서를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에서 고리키로 이동시키고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었다.

6. 고리키를 만나 마르크스와 크로포트킨에게로

3.1운동기의 혁명적 열기가 점차 사그라지고 1921년 말 워싱턴회의의 종결과 함께 외교적 방법에 의한 즉각 독립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1922년에는 '조선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두고 대결의 정치가 개막했다. 사회각 방면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통한 실력양성이나 자치론이 부상한 한편,

77) 1910년대 말에서 1920년대 초 조선에서의 고리키 수용에 대해서는 한설야 외 지음, 『고리키와 조선문학』, 김송본 엮음, 좋은책, 1990; 조진기, 「1920년대 고리키의 수용과 그 영향」, 『모산학보』 10, 동아인문학회, 1998 참조.

노동자, 청년, 여성, 소작인, 학생, 지게꾼 등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의 목소리와 움직임도 커졌다. 1922년 벽두에 있었던 '故 김윤식 사회장 반대운동'은 기왕에 사회운동, 교육, 언론 영역을 주도하던 기성의 지식인 집단에 대항하여 신진의 사회주의 운동가 집단이 정치적 실력을 과시한 사건이었다.『신생활』은 이러한 쟁론의 과정이자 그 산물로 탄생한 잡지였다.[78] 본고는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사회주의 잡지『신생활』의 문화 정치에서 '러시아혁명사' 담론의 내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신생활』은 공론장에서 러시아혁명의 이념을 볼셰비즘의 언어로 정의하고 정당화한 첫 번째 집단적 시도였다. 둘째,『신생활』은 당시 러시아의 사회상에 대한 긍정적 표상화를 통해 반사회주의, 반러시아 담론을 반박한 한편, 볼셰비키의 혁명 이념과 혁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경의 배경 및 의미를 해설했다.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분석을 전달한 성격이 강했지만, 볼셰비즘 노선을 참조하여 조선의 사회운동을 비평한 시도도 있었다. 셋째, 잡지『신생활』과 단행본『노국혁명사와 레닌』(1922.10.30.)에는 레닌 이전 혁명운동의 역사와 그 구성 요소를 자세히 형상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특히 혁명적 지식인의 민중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비참한 생활과 희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넷째, 신생활사에 모인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문학 혁신 운동의 모델로 러시아 근대문학과 고리키를 선택했다.

10호부터 발행된 주보는 제2의 창간이라 할 만큼 잡지『신생활』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신생활사의 러시아 담론의 핵심은, 레닌과 볼셰비키의 혁명론에 대해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한편, 러시아혁명을 배태하고 성숙시킨 혁명운동의 역사를 제시한 것이었다. 이는 검열의 압박을 포함한, 조선의 정치상황에 의해 강제된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봉건적 질곡과 전제정치, 자본주의의 억압이 결합된 사회에서 일약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과 볼셰비키는 주변부(반)식민지의 지식인들에게 사회

78) 3·1운동 이후 대중적 정치문화와『신생활』의 창간에 대해서는 김현주, 앞의 책, 323-354면 참조.

주의혁명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했지만,[79] 식민지 조선의 정치상황은 19세기 초 전제정치하의 러시아에 비견될 수준이었다.[80] 이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한 러시아의 혁명운동사에서 조선인들의 생활과 감각을 혁신할 새로운 형상을 길어 올리고자 했다. 레닌의 형상보다 '구' 혁명가들의 형상이 두드러진 것은 이 때문이다. 문학 혁신 역시 이 같은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본고는 신생활사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문학 혁신의 모델로 러시아 근대문학과 고리키를 선택했다고 보았는데,[81]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진학문, 유진희가 번역한 고리키의 단편소설 「의중지인」, 「신앙과 주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작품들이 선택된 이유와 수용 경로를 밝혀야 한다. 김명식의 고리키 비평은 앞선 고월의 글에 비해 '이데올로기 비평'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 지향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 저자인 우치야마 쇼조의 고리키 인식의 형성 경로 및 특징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신일용의 「민중문호 고리키의 면영(1)」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리키의 자서전과 크로포트킨의 고리키 비평의 수용 맥락을 해명해야 한다. 1920년대 초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서구와 일본에서 선택된 고리키에게 어떤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신일용의 「민중문호 고리키의 면영(1)」이 흥미롭다. 이 글은 실은 고리키의 문학세계를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다. 신일용은 '고리키'의 의미를 문학보다 더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고 있다. 그는 맑스의

79) 권보드래, 「김기진의 '클라르테(Clarté)' 번역과 한국문학의 레닌적 계기」, 『사이間SAI』 3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219면.

80) 김명식은 19세기 초반 니콜라이 1세가 전제정치 폐지와 입헌국가 수립을 위한 지식인들의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을 탄압한 내용을 번역하고 '20세기의 조선이 1828년 이래의 러시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첨언한 바 있다.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9)」, 『동아일보』, 1921.6.20.

81) 본고는 『신생활』의 문화 정치의 러시아 맥락에 주목했지만, 이것만으로 이 잡지의 문학 지향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예컨대 기자 중 이성태와 정백은 다른 기자들과는 사상 지향과 문학 취향이 다소 달랐다. 오스기 사카에의 해석(아나키즘과 생명주의)에 의해 매개된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의 영향에 대한 박양신, 이형진의 연구는 이성태 등이 시도한 글쓰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박양신, 「다이쇼시기 일본·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 『한림일본학』 22,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3; 이형진,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에 관한 논고」, 『석당논총』 73,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9.

"사상적 계통"을 따를 결심이며 크로포트킨의 "燃燒的인 인간애"와 "혁명적 사색적인 정열을 사모"한다고 밝힌 후 자신이 이 두 사람을 "正面으로" 이해하게 된 것, 즉 그들의 "혁명사상의 세례를 받고, 그들의 학도"가 된 데에는 고리키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적었다. 고리키의 문학에 대한 소개는 말하자면 그 내용을 서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82] 고리키를 만나 마르크스와 크로포트킨에 가닿는 길이란 어떤 길이었는가? 신일용의 고리키 소개문이 식민지 사회주의 운동가의 주체 형성 경로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82) 적소,「민중문호 고리키의 면영(一)」,『신생활』10, 1922.11.4., 15면. 이 글은 3회까지 연재되었지만 2-3호는 발매금지, 압수 처분을 받아 현재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 참고문헌

자료

『신생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공제』
『社會主義硏究』
김명식, 『노국혁명사와 레닌』, 신생활사, 1922.
山川均・山川菊榮, 『勞農露西亞の硏究』, アルス, 1921.
昇曙夢, 『藝術の勝利 - 露西亞硏究』, 日本評論社, 1921.
山川菊榮・山川振作 編, 『山川均全集 3』, 勁草書房, 1967.

연구서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박종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
한기형, 『식민지의 문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한만수, 『허용된 불온』, 소명출판, 2015.
한설야 외 지음, 『고리키와 조선문학』, 김송본 엮음, 좋은책, 1990.
小野容照, 『朝鮮独立運動と東アジア: 1910-1925』, 思文閣, 2013.

연구논문

권보드래, 「김기진의 '클라르테(Clarté)' 번역과 한국문학의 레닌적 계기」, 『사이間SAI』 3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김경연, 「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신생활』의 사회주의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의 기획」, 『한국문학논총』 71, 한국문학회, 2015.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43, 경희대 글로벌인문학술원, 2016.
김소정,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러시아 소설 수용 양상에 관한 비교 고찰」, 『동서비교문학저널』 38,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6.
김정호, 「佐野学의 轉向 論理와 그 社會的인 反應」,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종현, 「『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과 문예의 특성」, 『인문논총』 32,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김현주・조정윤, 「『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운동의 편린」, 『대동문화연구』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김현주・카게모토 츠요시(影本剛), 「초창기 사회주의 지식인의 러시아혁명 인식- 김명식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921)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0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2.

박양신,「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35, 일본사학회, 2012.
_____,「다이쇼시기 일본・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한림일본학』22,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13.
박종린,「또 하나의 전선—신생활사 그룹의 민족일치론 비판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6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1.
박헌호,「1920년대 전반기『매일신보』의 반사회주의 담론 연구」,『한국문학연구』29,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박현수,「신문지법과 필화의 사이:『신생활』10호의 발굴과 연구」,『민족문학사연구』6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_____,「신생활 필화사건 재고」,『대동문화연구』10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이형진,「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에 관한 논고」,『석당논총』73,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9.
정윤성,「『신생활』의 역사적 의미 재론: 잡지사의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6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정혜선,「1920년대 일본사회주의 운동과 평화공간—일본공산당과 사노 마나부의 활동을 중심으로」,『인문사회 21』7-5, 인문사회 21, 2016.
조진기,「1920년대 고리키의 수용과 그 영향」,『모산학보』10, 동아인문학회, 1998.
최병구,「1920년대 프로문학의 형성과정과 '미적 공통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최선웅,「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한국사학보』26, 고려사학회, 2007.
최은혜,「민족과 혁명: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민족문학사연구』77,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허호준,「일본 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탐라문화』3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11.
小野容照,「1920-21년 조선 내 합법 출판물의 일본 문헌을 통한 맑스주의 학설 소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Abstract】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Magazine *New Life* and th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Kim, Hyun-Joo*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discourse on th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in the cultural politics of Joseon's first socialist magazine *New Life* (March 15, 1922 - January 8, 1923). A summary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New Life* was the first collective attempt to define and justify the ideology of the Russian Revolution in the language of Bolshevism in the public sphere. Second, *New Life* refutes the discourse of anti-socialism and anti-Russian revolution through positive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image of Russia at the time. and explained the meaning. Although it had a strong character of conveying the analysis of Japanese socialists, there was also an attempt to criticize the social movement in Joseon by referring to that line. Third, in the magazine *New Life* and the book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and Lenin* (October 30, 1922), there are attempts to embody in detail the history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before Lenin and its components.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vividly convey the revolutionary intellectuals' love, passion, and sacrifice for the people, as well as the miserable lives and sacrifices of workers and peasants. Fourth, the socialist activists who gathered at *New Life* recognized the need for a literary innovation movement before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referred to modern Russian literature as a model. Maxim Gorky was chosen as the model for the new literature.

Keywords: *New Lif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and Lenin*, Russian Revolution, Bolshevism, Maxim Gorky.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